NEW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美, 이란 직접 타격 단행
트럼프 "3개 핵시설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두 나라간 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미국의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B-2가 동원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이번 공격에 벙커버스터 GBU-57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광주시, 10월까지 2차 접수

광주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10월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장승기 기자 sky@

NEWS 한국에너지공대 예산, 추경으로 일부 복원

2차 추경 예산안에 켄텍 지원금 100억원 포함
실험장비 도입·연구기반 구축…학사 운영 숨통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의 정부 지원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확대 조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중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 지원금 1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실험장비 도입과 연구기반 구축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주도로 개교한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국립대학으로, 당시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250억원의 사업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산 기조가 급변했고, 2023년에는 지원금이 200억원으로 50억원 감액됐으며, 2024년에는 다시 100억원으로 축소됐다.

예산 삭감 배경에는 정치적 논란도 있었다. 2023년 3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산업부도 학교 측의 예산 운용과 관련된 감사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정부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도 제기되며 지원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원 예산이 줄어들자 학교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여파가 나타났다. 실험실 장비 도입이 늦어지고, 교육과 연구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한시적이지만 일부 예산이 복원되면서, 한국에너지공대의 기본 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됐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 관계자도 "올해 예산이 워낙 큰 폭으로 줄어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추경 예산이 확정된다면 실험 장비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출범 첫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첫주 성과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특검보 임명 매듭…이번주 본격 가동

내란팀, 외환죄 의혹 정조준…김건희팀, 16개 의혹 수사
순직해병팀, 尹 격노설·수사외압 등 의혹 실체 규명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며 '3대 특검'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매듭지어져 이번 주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고 이명현 특검이 지난 20일 오후 늦게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특검보 인선이 완료됐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1주일여만으로, 이번 주부터는 3대 특검팀 가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개시 다음 날인 19일 특검보를 모두 임명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특검보 4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명현 특검은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특검보가 지난 20일 임명됐다.

지난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부터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잦은 호우특보에도 피해 적었다

최근 10년간 419회 발효…전남도 선제 대응 효과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해 피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의 체계적인 사전대응과 재해예방 사업이 일정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19일 발간한 JNI 인포그래픽 '올 여름, 안전한 전남'을 통해 전남의 집중호우 발생 추이와 피해 현황, 과거 주요 피해 지역,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재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기상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호우특보 발효 횟수는 제주 551회에 이어 전남이 419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남의 호우 피해액은 약 2701억원으로, 경북(8910억원), 충북(4410억원), 충남(3310억원)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은 과거에 비해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연평균 14.4일이던 집중호우 일수는 2020년대 들어 34.2일로 늘었고, 시간당 72㎜ 이상의 극한호우 빈도 역시 같은 기간 0.5일에서 2일로 4배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간의 피해액은 2020년에 집중됐다. 이 해는 전국적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1982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10년간 전체 피해의 73.4%를 차지했다. 특히 담양(506억원), 구례(419억원), 곡성(295억원) 등 하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939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7곳, 풍수해생활권 16곳, 급경사지 40곳, 재해위험저수지 25곳 등 총 128곳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마을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침수·산사태 취약 지역 예찰, 고령자 및 장애인 대피 지원, 대피소 운영 등도 강화하고 있다.

유인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은 대규모 국가하천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홍수 위험이 크지만, 호우 피해 규모는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과거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한 홍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이미 수립한 홍수관련 법정계획과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하차도, 지하 건축물, 농업지역, 산업단지 등 각 분야별 취약지점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 부연구위원은 "호우 피해 주민들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보상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대비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jni.re.kr) 및 공식 인스타그램(@jn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